

전남도, 나주 SRF 가동 중단 촉구...갈등 재연 우려

김영록 지사 "주민의견 무시, 소송만으로 갈등 해결 못해" 산업부 주도 문제 해결할 거버넌스 구성해 대안 마련해야

전남도가 전격 가동에 들어간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의 최종 판단 이전에 공기업이 지역사회 여론과 맞서며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또한 소송에만 기댄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갈등 해결 기구(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남도는 27일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

해 가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안은 여러 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의 판결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난방공사는 광주지법이 SRF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측 손을 들어준 지 40여일 만인 지난 26일 빛가람동에 설치된 SRF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하루 440t의 SRF를 투입하도록 설계했으나 장기간 가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20% 수준인 100t을 이날 투입하는 등 저출력 상태의 운영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게 난방공사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법원의 1심 판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방공사의 일방적 발전소 가동은 SRF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합의하여 이어온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또한 추후 재판에서는 기준에 다투지 못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첨예한 갈등이 내재된 문제를 소송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관과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역민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부 주도로 새로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난방공사는 혁신도시 열·전기 공급을 위해 2700억원을 투입,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춘 열병합발전소를 빛가람동에 건립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직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주민 반대로 멈춰 섰다.

광주 쓰레기로 만든 SRF를 나주에 반입하는 문제에 대한 항의와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고, 나주시도 '공익' 등을 명분 삼아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광주지법이 지난 4월 "나주시의 SRF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는 난방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발전소 시설 자체는 사업계획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나주시가 주장하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재창업자 지원 '빛고을 재도전' 기업 모집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빛고을 재도전 지원'에 참여할 14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빛고을 재도전 지원사업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에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게는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500만원의 사업과 자금과 실패 원인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애로·현안사항 해결과 정보공유를 위한 정기·수시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와 아이플렉스(I-PLEX)광주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과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빛고을재도전 지원 기업 16곳을 선정해 시제품 및 금형제작, 마케팅, 제품기술개발, 상품출원 등을 지원했으며, 참여 기업 모두가 창업에 성공했다.

순환환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창업 실패인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사업계획 고도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광주시, 교통불편 최소화

유관기관 참여 대책 실무협 확대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전 구간 공사 확대를 앞두고 교통 불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올해부터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처리대책 실무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운고가 철거 등 현안사항에 따라 필요시 개최했던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재구성해 이달부터 확대시행한다.

실무협의회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을 팀장으로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 경찰청, 경찰서, 자치구,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담당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매월 1회 이상, 필요시 상시 운영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공사로 인한 차로 통제에 따른 차로배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안정시설물, 노면유도 표시, 기타 안내표지 등의 적정 설치, 차로 통제 구간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안을 논의한다.

지난 12일 실무협의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확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문제와 시·경찰청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인 단계별 교통전환 시유턴구간 변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주월교차로, 백운광장 유턴 개선안을 검토해 지난 25일 현장에 적용했으며,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내실 있는 실무협의회 확대 운영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차로 통제에 의한 시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꿈이 담긴 종이비행기' 날리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곡성기차마을 로즈홀에서 열린 '2021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꿈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공공분야 구축 기대

정부 시범사업공모 2년 연속 선정 코로나 신속검사체계 솔루션 개발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공공분야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 참여해 선정됐으며, 확보한 국비 7억원 등으로 공공분야에 양자암호통신을 활용한 안전한 데이터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사

업은 비대면 확산에 맞춰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공공 분야에 구축해 실증하고, 응용서비스를 발굴해 양자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과기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양자암호통신은 해킹과 도청 위험이 중요시되는 자율주행차, 금융데이터,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정망 구축과 4차산업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술산업이다. 광주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개인정보 등 보안을 강화한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한 전용검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증상을 가진 시민과 접촉자 검사현황, 결과 통보 등 정보를 유관

기관과 실시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 양자융합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자융합 산업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양자정보통신 및 양자센서 상용화 역량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순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육성과장은 "양자암호통신 시험망이 구축되면 지역 내 양자 정보통신업체의 제품 마케팅 활성화와 국내 양자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광주시가 양자정보통신 산업 육성 도시 메카로 우뚝 서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선도도시와 더불어 양자산업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지역 10개 수출기업 태국시장 880만 달러 상담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5일까지 1주일간 10개 수출기업이 태국 29개 바이어사와 880만 달러 규모의 화상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진행했다. 전남지역 수출기업은 자사 사무실이나 무안의 전남도 화상수출상담소에서, 태국 바이어는 자사 사무실에서 참여했다. 상담 품목은 김, 전복, 배, 유아음료 등 농수산물과 화장품이다.

바이어는 대면 상담 시와 같이 3-4차례에 걸친 정보 검토를 통해 참여 기업이 진성 바이어를 선정해 참여했다.

현지 바이어의 사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홍보물과 견본 제품을 미리 발송했다.

화장품의 경우 미리 발송한 견본을 현지 바이어가 사전 테스트해 구체적 가격협상과 OEM 가능 여부 위주로 이뤄졌다. 농수산식품은 직접 보고, 만지고, 맛도 보면서 이뤄져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수출기업이 태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